

입학 전 규칙적인 생활습관 익혀요

예비 초1 준비 가이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부모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혼자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신발 끈 묶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것에 대해 소개한다.

화장실 사용·옷 정리 등 미리 연습해야 읽고 쓰기·100까지 숫자 세기 등 숙지

◇생활 습관 바로잡기
입학 전까지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등교시간을 감안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자.
아이의 손을 잡고 입학 할 초등학교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 등·하교길을 익힐 수 있도록 예행연습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어른에게는 가볍게 목례 하거나 공손히 인사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들 대부분이 점퍼 등을 옷걸이에 걸거나 단추와 지퍼 잠그는 것을 어려워한다. 유치원과 가정에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대신 해줬지만, 초등학교가 됐으니 스스로 외투를 벗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추 끼우고 풀어보기, 지퍼 채우기, 옷걸이에 외투 거는 법, 뒤집힌 소매를 바로 펴거나 옷 개는 법, 신발 끈 묶기 등 아이에게는 생소한 생활습관들을 반복하며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좋다.

필수 예방접종 여부와 시력검사도 필요하다. 시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머리가 아파 집중이 어려워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준비물도 1학년만의 특성을 고려해 챙겨야 한다. 책가방과 노트 등 학용품은 비싼 것보다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 실용적인 것을 고르도록 한다.
실내화, 연필, 필통, 책가방 등 기본적인 학용품은 준비해야 하지만 공책과 색종이, 물감, 색연필 등은 입학 후에 마련하는 게 좋다.

담임교사가 필요 여부에 따라 준비물을 공지하고 준비 시간을 별도로 주기 때문이다. 3월 한달 정도는 아이가 하교한 뒤 안내장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방침, 다음날 준비물 등 다양한 안내 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책가방은 보습자가 일반적으로 챙겨주지 말고 아이와 안내장 및 알림장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스스로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아이가 책가방 챙기는 것을 도와주고 연필을 깎고 필통을 정리하면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 보습자가 아이의 등교 준비 모습을 칭찬해주면 자기 주도적인 생활습관도 들일 수 있다.

아울러 3월 중순에 학부모총회가 열린다고 하면 행사 직책을 맡을까 부담스러워 되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교의 교육관과 운영방식 연간 주요일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나라 기자



조선이공대는 25일 대학 프레젠테이션실에서 호남·제주권역 전문대학·협업 활성화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 /조선이공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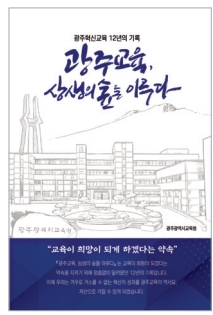
조선이공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제주관광대

호남·제주권역 지속가능 산학협력 맞손

호남·제주권역 4개 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이공대는 25일 대학 프레젠테이션실에서 조선이공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등 4개 대학 산학협력단장이 모여 호남·제주권역 전문대학 공·협업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
공공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상생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이날 협약은 호남·제주권역 산학협력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학 간 상호발전은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사업 체계 고도화를 위한 공동 관심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포스트코로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공·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 간 특화분야 공·협업 활성화, 상호 컨설팅 등으로 산학연 협력 후발대학의 성장 지원 ▲개별 대학 간 대학-산업계 간 공·협업 플랫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 등이 담겼다.
/이나라 기자

광주혁신교육 도전·성과 담은 책 발간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혁신교육 12년의 도전과 성과를 책으로 묶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광주혁신교육 12주년을 맞아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그리고 그 의미를 돌아보고 더 나은 광주교육의 미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교육, 상생의 숲을 이루다'를 발간했다.
400쪽 분량의 단행본은 ▲1장 철학과 방향의 변화 ▲2장 정책의 변화와 성과 ▲3장 광주혁신교육 12년의 의미 ▲4장 진행 과정과 설문 데이터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행본은 시교육청 내부 교육정책 담당자 및 외부 자문위원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교육 가족 간담회·교직원 설문조사·정책 담당자 협의회·각종 실태조사 분석 등을 실시해 더욱 정확한 자료를 담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교육, 상생의 숲을 이루다'에는 경영교육이 상생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배움의 본질에 집중된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확장·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협치·시도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광주교육의 선도 정책 등이 담겨 있다.
/이나라 기자



◇학습 적응력 향상
1학년의 학교 수업 시간은 1교시당 40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 2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일쑤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그리기 등을 기반으로 40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도록 집중력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 된다.
입학 전 기초 학습 능력을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적인 글씨 쓰기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1에서 100까지 수를 셀 수 있어야 한다. 국어와 수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주제 중심 통합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자.
/이나라 기자

지역대학 연계 교육회복 프로그램 활발

전남교육청, 멘토링 운영 초·중 기초학력 향상 지원

겨울방학을 맞은 전남 도내 교육 현장에 지역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뒤쳐진 초·중학생들의 학습회복을 돕고 있다.
2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초·중학교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남대와 광주교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멘토링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까지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남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



신안 신의초 학생들이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습지도 받고 있다. /신의초 제공

용,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수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이다. 전남 대학생들이 관내 초등 5-6학년 15명, 중학교 1-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창의과학활동 등을 제공해준다.
/이나라 기자

담양교육지원청도 광주교대 예비교사나눔 멘토링을 오는 28일까지 관내 초·중 5개 학교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담양교육지원청-광주교대-담양군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관내 초·중학교 34교 19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을 운영한다.
화순교육지원청 역시 '겨울방학 중 예비교사 대학생 멘토링'을 초·중 5개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화순 초·중학생을 멘토로, 광주교대생을 멘토로 선정해 맞춤형 학습지도, 진로·고민 상담 및 생활 조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 신의초등학교는 2월 4일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 코딩, SW 프로그램 등으로 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대, 재난 전문인력 양성

희망브리지·재난안전기술원과 업무협약

광주대가 재난안전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재난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광주대는 최근 학교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재난안전 연구 및 교육·구호 활동 봉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식에는 신석규 광주대 공과대학장과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재난구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안전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 공동으로 재해구호 활동과 자원봉사, 성금 모금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찢어 먹는 달린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직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